

불미전 활성화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돼 공동위원장 손연철·허길량氏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헤일)는 6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미전 역대 수상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상자들은 '불미전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칭)'라는 이름의 모임을 구성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추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손연철·허길량 작가를 선출했다.

이날 조계종 문화부장 헤일 스님은 "그동안 여러 수상자들의 요청으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여러분들이 인적 교류가 없었기에 작가들의 역량이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면서 "이번 모임이 불교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 25일 첫 모임을 갖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승적관련특별조치법 즉각적인 개정 필요” 삼화도량, 11일 성명 발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6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용주사 운영위원장 정호 스님이 4일 조계종 법무감사국에 ‘승적관련특별조치법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지 1년 3개월이 지나지만 종도들이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면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방의 의견을 수렴해 승적 위반조·허위 수계기록·수계 미수지자를 제외한 승려들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두 번째 주지직무대행 제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계종 2교구 본사 용주사는 8월 중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주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호)는 6월 9일 열린 회의에서 하안건 해제일인 8월 10일 이후 산중총회일을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성직스님이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10.27법년 “명예회복·치유 공간 돼야” 기념관

조계종 10·27법년 학술발표회서 기념관 운영 방안 제시

10·27법년 기념관 건립 불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기념관 내 법년 연구 및 체험시설과 함께 치유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함께 건립·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조계종 총무원이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하는 '10.27법년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는 일련의 논문에서 제기됐다. 특히 10.27 법년 기념관 운영 방안과 건립 구상에 대한 발표문은 눈길을 끈다.

이날 발표문 나서는 임재도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은 미리 배포한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상황과 통합적 치유모델'을 통해 "5·18 피해자들 중 1980년대 25명, 1990년대 3명, 2000~2001년까지 12명이 경제적 보상 이후 자살을 선택했다"며 "고문 등 인권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명예회복과 심리치유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국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문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 우울장애에 5.6%에 비해 약 4배 높은 23.1%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임 사무국장은 “법년 피해 스님들의 경우 성직자임에도 그 고통이 쉽게 잊혀질 수 없으며, 오히려 세속 권력으로부터 받은 박해는 일반인 피해자들에 비해 훨씬

를 수 있다”며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법년기념관 기본설계를 맡은 김구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장은 '10·27 법년 기념관 기본구상'을 통해 법년 기념관을 기념관 1동과 치유시설 1동 등 총 2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 등 피해자 심리장애 4배 높아 전문가 “성직자 트라우마 더욱 심각” 치유 및 불교문화 증진 시설 건립

김 사무소장은 “법년 기념관 부지인 조계사 일대는 높은 인지성과 접근성으로 인접한 고공과 인사동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기념관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만큼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전달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사무소장은 “치유시설은 생선 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 역할을 하며 여기서는 트라우마 관련 연구 및 치유상담과 재활프

로그램 노하우를 축적하는 관련 기관도 함께 입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순 문학박사는 '10·27 법년 기념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법년 기념관의 당위성은 한국불교 명예회복과 인권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기념관 운영은 전시, 연구, 교육, 공연 네 파트로 법년 콘텐츠의 상설전시와 함께 역사교육과 불교문화 체험, 불교문화재 활용 교육 등이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박사는 기념관 내에 공연장을 구성해 인권과 평화 등을 주제로한 창작연극과 영화·애니메이션 등을 상영하는 곳으로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영화제 등을 불교계가 주도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조계종이 발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10·27법년 기념관은 종교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의미를 알리는 기념관과 치유 전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치유센터로 나눠진다.

기념관 건축계획에 따르면 법년 기념관에는 연면적 20,100㎡(6070평)에 지하 5층, 지상 6층 건물로 전시실, 불교문화체험실, 불교자료열람실, 사무·연구공간, 강당 등이 들어선다. ‘피해자 치유시설’은 연면적 1,418㎡(425평)에 지하 3층, 지하 1층 건물로 물리치료실과 치유시설, 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첫 개최 조계종 학인염불대회 ‘HOT’

참가 접수만 296명… 일시 7월 17일로 변경

염불 대중화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하는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할 시연대회를 하루 늦춘 17일 치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선 장소도 조계사 앞마당 특별무대로 변경됐다.

시연대회의 일정과 장소가 바뀐 이유는 참여 학인의 수가 예상치를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시연대회 참가 접수를 한 학인은 개인부 110명(사미 42명, 사미니 68명), 단체부 186명(사미 6팀, 사미니 6팀) 등 총 296명이다.

대회는 7월 17일 당일 예심과 본심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예심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과 2층 회의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

터 등에서 나눠 열린다.

예심을 통해 선발된 개인부 10명(사미 5명, 사미니 5명)과 단체부 4팀(사미 2팀, 사미니 2팀)은 오후 2시부터 조계사 앞마당 특별무대에서 본심을 치르게 된다. 개인부는 12분간 지정염불과 자유염불을, 단체부는 10분간 시연한다.

염불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열리는 대회인만큼 심사 기준은 창의성과 대중성 등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심사위원장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맡게 되며, 의례위원 스님과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인선될 예정이다.

교육부장 정호 스님은 “그간 교육원에서 기본교육기관에 염불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온 만큼 염불에 대한 학인 스님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회가 염불 대중화 실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환경 훼손 지리산 선교사별장 철거하라”

조계종 환경위, 별장 문화재 등록 움직임에 항의

지리산 왕시루봉에 위치한 선교사 별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기독교 단체의 시도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는 6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건축물은 “등록문화재 기준 상 역사성과 유산적 가치가 미비하다”며 “지리산 국립공원과 자연유산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한 철거와 자연생태원형복원”을 주장했다.

마땅하다”고 말했다.

200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 사무소에서는 별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철거요청을 했고 학교측에서도 이를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선교사 별장은 교육부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

환경위는 별장 문화재 등록과 관련하여서도 “목조슬레이트로 지어진 가건물 형식의 별장은 문화재라 하기에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문화재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등록문화재 주요 등록 기준은 ‘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지리산 왕시루봉 위치한 가건물 수준 별장 12채 “문화재 등록 기준 미달”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전쟁 당시 지은 별장은 선교사 휴 린튼이 다시 재건, 현재 집 10채와 교회 1채, 창고 1채 등이 남아 있다. 별장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이사장 안요한씨는 휴 린튼씨의 아들이다.

문제는 별장이 지리산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불법으로 위성TV와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위는 이에 대해 “생태환경보존을 위해 매우 엄격한 보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으로서의 중요성과 보존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성명서에서 환경위는 문화재청에 “별장 등록문화재 지정은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의 자연유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안시루봉 선교사 별장은 이미 2004년에도 문화재 가치평을 신청했으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지정 부결’된 적이 있다.

향후 근대문화재분과에서는 별장 현장 방문 후 문화재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기초생활법 개정이 빈곤문제 외면 부추겨”

조계종 노동위, 11일 빈곤 대책 토론회서

승파 세모녀 죽음 100일을 맞아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6월 11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종합정보관 3층에서 그간 발표했던 빈곤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노동위는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승파 세모녀 자살 후 정부와 국회에서 았다뒹 관련법들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빈곤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관심을 되새기고자 마련하게 됐다” 밝혔다.

토론회는 김윤영 빈곤연대 사무국장의 ‘박근혜 정부 복지3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모녀들의 비판과 대안’ 발제 후, 중앙승가대학교 유승무 교수를 비롯한 빈곤, 사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6월 11일 승파 세모녀 죽음 100일을 맞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전문가들의 상호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김윤영씨는 “201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35만명인데 반해 비수급빈곤층은 4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는 복지 소외계층 발굴 조사를 했더라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상당수가 수급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7가지로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 개별급여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최저생계

비를 무너뜨리고 책임주체를 각 부처로 떠넘겨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근로 강제 조건부수급조항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어 이동현 홀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복지제 혜택을 받지 못한 빈민들은 기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관련기사 31면>

한국불교 대각종 창종 선포문

설립 취지문

어언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진지 1650여 년, 그 동안 불교는 우리 역사 속에 녹아들어 온 국민의 빛나는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온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정신의 바탕이자 지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석가세존께서 이 세계에 오신 이유는 무명의 어둠에서 해매는 모든 중생들을 깨우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는 탐욕과 고정관념으로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선량하게 제어하도록 가르치신,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탐욕과 개인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도리를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환희와 행복이 가득한 이상향이 됩니다. 우리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맑게 하는 여의주가 되기 위해, 수행을 늦추지 말고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대각은 지금 사회의 패배한 배금주의와 감각에 의한 향락주의의 문제를 깨닫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밝혀, 향락에 눈멀고 물질에 사로잡혀 고정관념과 탐욕을 버리면, 우주가 하나고 진리가 하나이듯, 인류의 마음도 인류의 육신도,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말하기보다 경청을, 향락보다 봉사를, 고집보다 양보를 이행하면, 결국에는 하나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일 때를 부처님께서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이 동체대비를 몸으로 실천하신분이 우리나라의 원효성사입니다. 왕족의 혼척이면서 서민과 함께 행복을 찾으신 원효성사. 원효성사를 본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대각이란 깃대를 세우기에, 알맞은 대각종을 창종합니다. 대각종은 원효사상을 수행의 모체로 삼고 위로는 석가세존의 교리를 봉행하며 일관된 화쟁사상으로 모두가 일불제자임을 알린 원효성사를 종조로 모십니다.

불기 2558년 5월 20일 제정
불기 2558년 5월 23일 공포 시행

한국불교 대각종 총무원장 무염대각 계수

